

Elim

엘림중국선교센터

엘림중국선교센터

기나긴 코로나 상황으로 모든 곳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난 학기 충북대학교 신입생 2명과 센터에서 한국어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재하며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은 코로나가 재확산되기 전, 비록 기존 모임에 참석하는 학생들이 모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참석할 수 있는 학생들과 신입생 2명, 그리고 협력하는 간사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 이야기도 나누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코로나 재확산으로 모두 모이는 모임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학생은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 안타깝고, 기존 학생들은 한 두 명씩 졸업으로 중국으로 돌아가기만 해서 마음 아팠습니다. 그래도 다음 학기에 충북대학교에 100여명의 중국유학생이 들어온다고 하니 기대됩니다. 그래서 재확산 된 코로나 상황속에서 어떻게 접촉해야 할 지 고민하며 기도중에 있습니다. 그들을 섬기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기를 기도합니다.

‘엘림중화선교회’ 사역계좌에 헌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중국 현지 신학생 장학금으로, 현지 교회 행사를 위해, 교회 운영을 위해 등등 다양한 사역을 위해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지 교회로 헌금은 모두 전달했으며, 장학금은 학기 개강하는 8월 말쯤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국성경신학원(CBC)

세계사역자 훈련원(WMTC)은 중국성경신학원(CBC)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대전 충청권에서 중국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 선생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총 5명이며 세 명의 한국인 중국선교사님과 두 명의 중국인 사역자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학기 과정을 모두 마치고 지난 6월 수료식을 했습니다. 현재 학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3명의 학생이 신청했습니다. 일정은 9월 8일 ~ 12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첫 번째 학기입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모집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중국남부성경신학교(CSBC), 청공대학생센터

중국 현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모두 학기를 마치고 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몇몇 학생은 학교를 졸업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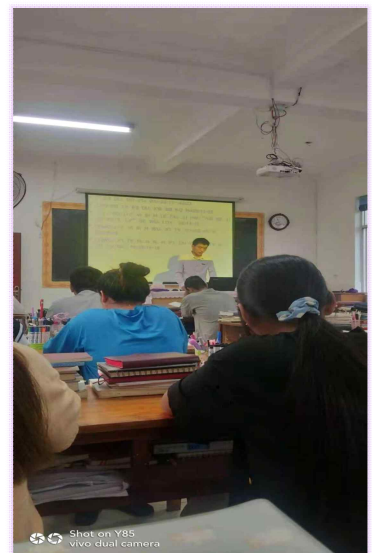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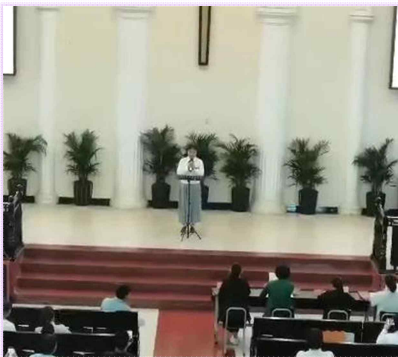
양푸메이 학생은 운남신학교가 방학이라 시골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방학중에 집으로 돌아가면 고향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어렵지만 즐겁고 말씀을 나누는 기회가 감사하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저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요. 지난 학기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쌍웬화 학생은 리수어성경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운남신학교 입시시험도 합격했습니다. 여전히 재정적인 문제를 걱정하지만 학업을 이어나가겠다고 결정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쌍웬화 학생 아버지께서 현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섬기고 계십니다. 아마도 공부를 마치면 아버지의 사역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새로운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리즈렌 학생은 학기를 마치며 학교에서 찬양 대회를 했는데 지난번 설교대회에 이어 이번에도 1등을 했다고 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또한 리즈렌 학생은 운남성경신학원을 졸업하고 운남신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금란 신학교 혹은 사천 신학교를 진학하기 위해 1년의 시간을 운남신학교에서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금란 신학교는 문화대혁명 이전에 세워진 신학교이며 중국 전역에서 학생들이 지원하고 지역마다 입학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입학이 쉽지 않습니다. 계획한 대로 1년의 시간을 잘 보내고 금란 신학교 혹은 사천 신학교 진학이 순조롭기를 기도합니다.

리송화, 덩싼바이 학생도 리수어성경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두 학생은 교회에서 사역하기로 결정하고 졸업 후 본인들의 모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중국교회 사정상, 특별히 시골 교회는 재정의 어려움이 많아 사역자들이 집안일(농사)을 하며 사역을 병행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맡겨 주시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이,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공대학생센터는 인터넷 채팅으로 모임을 유지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모임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코로나를 이유로 종교를 간섭하고 탄압하여 모임이 점점 어려워져가고 있습니다. 중국교회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주님의 몸된 중국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견뎌 낼 것을 확신하고 중국 땅에서 지속적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중국현지 교회

라투지아 교회에서 지난 6월1일 어린이 날을 맞이하여 교회에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사를 위해서 헌금도 보내주었는데 감사하게 잘 마쳤다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참석해서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 저도 참석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먹먹해졌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 그 곳을 방문하여 사역자를 격려하고 아이들과 잠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아이들 얼굴이 눈에 선합니다. 코로나 상황과 비자문제가 해결되어 다시 방문하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1. 엘림중국선교센터에서 중국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여 선교중국으로 나아갈 일꾼들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2. 중국성경신학원에서 건강하고 하나님의 열정을 가진 목회자와 평신도 사역자가 양성되길 소망합니다.
3. 중국남부성경신학교의 신학생과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길 소망합니다.
4. 청공대학생 센터의 대학생 성경공부 모임과 주일예배 모임이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5. 중국현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 복음 전파 사역을 잘 감당하고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들의 영육간의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6. 예현(8세)이가 초등학교에 재학중이며, 지현(6세)이는 병설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길 소망합니다.